

이슈브리프 통권126호
(2019.5.15)

최고인민회의 이후 김정은의 군 현지지도 특징 분석

김 보 미
북한연구실

제126호



최고인민회의 이후 김정은의 군 현지지도 특징 분석

김 보 미 (북한연구실)

최근 들어 김정은의 군 현지지도가 부쩍 증가하는 모양새다. 조선중앙통신은 5월 9일 서해상에서 김정은의 참관 아래 화력타격훈련이 실시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올 들어 네 번째 군 현지지도 활동이다. 앞서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직후인 4월 16일과 17일에도 군 현지지도에 나서 이목을 끌었다. 2018년 11월 16일 신형점 단전술무기 시험지도 이후 5개월여 만에 발표된 군 훈련 및 무기시험 현지지도였다. 북한은 5월 4일에도 동해상에서 화력타격훈련을 진행하였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합의가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군 현지지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본 글은 최고인민회의 이후 4차례 진행된 김정은의 군 현지지도와 군부대 시찰의 특징을 분석했다.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훈련 현지지도

북한의 당중앙 기관지 노동신문(4.17)은 김정은이 4월 16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 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하였다. 새로운 전략노선의 선언 이래 북한은 연일 경제건설의 중요성을 선전해 왔으나, 최고인민회의의 14기 출범 이후 김정은의 첫 현지지도는 군부대 시찰이었다. 북한은 김정은의 방문에 대해 “부대 앞을 지나가다 추격습격기연대의 비행훈련실태를 료해하기 위하여 갑자기 들렀다”며 예정되지 않은 일정이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는 ‘우연을 가장한 의도된 연출’일 가능성이 높다. 김수길 총정치국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김광혁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등 주요 지휘성원들이 모두 참석한 사실은 김정은의 방문이 사전조율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비핵화 협상상대인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우연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공군부대 방문은 그동안 개최되어 온 「조선인민군 공군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대체하여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북미대화의 불씨가 살아있는 올해에는 도발적으로 비쳐질 수 있는 대규모 비행술경기대회를 개최

하기보다 군부대 방문이나 현지지도로 수위를 낮추고 약식화한 것이다. 김정은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비행술경기대회를 참관하였으나 2018년에는 북미 대화 국면과 남북 평화 분위기를 의식한 탓에 대회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이번 공군 현지지도에는 과거 비행술경기대회와 유사한 특징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비행술경기대회에서 조종사들은 습격비행, 초저공비행, 특수기교비행 등 다양한 공중전투비행 동작들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 공군 현지지도에서도 김정은의 주문에 따라 조종사들이 다양한 비행술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비행술 시범을 위해 동원된 비행기 역시 MiG-29, 수호이-25 등 과거 비행술경기대회에 등장하였던 기종과 동일하다. 김정은의 공군 현지지도에 대한 북한매체의 보도내용 또한 과거 비행술경기대회의 보도내용과 매우 유사했다. 김정은의 출격명령, 조종사들의 비행술 시험, 김정은의 만족 표시, 군 본연의 임무를 강조하는 순서 등으로 전개되었다.

동해 및 서해상 화력타격훈련 현지지도

김정은은 4월 17일 국방과학원을 방문하여 신형전술유도무기 현지지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한 비행유도방식과 위력한 전투부”를 장착한 무기의 성능에 대해 김정은이 큰 만족을 표시하였다고 전해졌으나 아직까지 많은 내용들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특히 국방과학원은 미사일과 신형무기의 연구개발, 재래식 무기 현대화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의 종류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김정은이 신형전술유도무기를 “국방과학부문에서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당이 제시한 핵심연구목표들을 점령하기 위한 투쟁”의 성과물로서 주체적 국방공업을 완성시킨 하나의 사례로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대외적 압박 속에서도 한정된 자원으로 새로운 무기개발에 성공하였음을 부각하는 한편, 방위력이 강화되었음을 과시함으로써 대내 결속을 도모하려는 국내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이어 18일 후인 5월 4일에는 동해상에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이 실시되었고 우리 군 당국에 의해 지대지 형태의 발사체가 여러 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화력타격훈련에 동원된 전술유도무기의 정체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등장한 신형무기가 탄도미사일 계열일 경우,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협상국면을 크게 악화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실험과 ICBM 테스트에 한정하여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통해 위협국면으로의 전환을 꾀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협상진전을 촉구하기 위한 대미 압박용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며, 또한 제1017부대에 이어 포병군단의 평시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5월 8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역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인터뷰에서 이번 발사체 발사를 두고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닌 자위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임을 강조하였다.

5월 9일에 실시한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에 대해서도 북한은 어디까지나 자위적 국방능력의 강화·발전을 위해 진행된 훈련임을 강조하였다. 이 날 북한은 서해상에서 김정은의 지시 하에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남북군사합의의 취지를 위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대변인은 5월 10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별도 문답을 통해 이번 화력타격훈련은 어떤 위협 의도를 지닌 것이 아니며 미사일 발사는 “정상적인 훈련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이후 전개되고 있는 무력 활동에 대해 북한은 정상적인 훈련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핵·미사일 시험이 중단되고 지난 동계훈련의 강도가 평년보다 낮아진데다가 군의 경제건설 동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북한지도부 내에서는 군사력 약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동안 김정은은 평시 군사력을 각종 포병대회와 ‘땅크병’ 경기대회, 특수부대 타격대회 및 대규모 화력 시위 등을 통해 점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비핵화를 위한 대화국면이 이어지면서 선불리 과거와 같은 수준의 군사도발을 감행하기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북한은 김정은의 군부대 시찰과 현지지도, 과거에 비해 축소된 화력훈련 등을 통해 군사력을 수시로 확인하고 평시 전투태세 강화를 주문함으로써 군의 기강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 활동에 침묵한다면, 국제사회가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용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변인은 5월 9일 화력타격훈련 중 발사한 단거리미사일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중장거리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단거리미사일 발사 허가를 받았다고 오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징과 시사점

최고인민회의 이후 김정은의 군 현지도도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군의 존재함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월 17일,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 후 김정은은 인민군대가 현대적인 무기체계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한 결과,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김정은은 제1017부대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부대가 조건과 환경에 구애되지 않고 모든 비행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북한군의 평시 전투태세 능력 향상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은의 부대방문을 보도한 노동신문은 “비행기들의 원 성능을 회복하고 전투력을 한계단 끌어올렸다”는 표현을 통해 무기관리 부문에서 북한 공군이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드러내었다. 이는 항공유 제재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공군력이 존재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북한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김정은 시대 들어 강조하고 있는 북한군의 ‘최정예화, 강군화 노선’을 관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제건설노선이 강화되면서 북한지도부는 북한군의 훈련부족과 사기저하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자원으로서 군의 역할 강화는 군의 전쟁수행 능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군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북한군은 그동안 각종 포병대회, 열병식 등을 개최하여 인민군의 호전성과 응집력을 과시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이 같은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생략되고 있다. 대화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올해에도 북한군의 대규모 행사들이 다수 생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대신하여 김정은 군부대 방문이나 훈련지도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동계훈련이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평시에도 전시태세에 준하는 훈련을 통해 군이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주문하는 것이다.

셋째, 김정은의 군 현지도는 비핵화 국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적극적 태도 유도를 위한 압박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대남선전매체들을 통해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4월 9일,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한국이 도입한 스텔스전투기 F-35A가 청주 공군기지에 도착하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신적 망동”이라고 비판하였다. 5월 7일, 또 다른 대남선전매체

인 메아리는 올해 8월로 예정된 ‘동맹 19-2’ 훈련을 두고 남북선언들에 대한 공공연한 배신행위라고 비난하였다. 5월 10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변인은 3월과 4월에 진행한 ‘동맹 19-1’ 훈련과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지적하면서 남북군사합의는 북측이 아닌 우리 군 당국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이로 보아 북한은 각종 무기지도, 타격훈련 등을 공개하여 한미군사훈련에 대응하면서도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대북 유화 제스처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의 군 현지지도와 관련한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갑자기,’ ‘임의의,’ ‘예고없이,’ ‘불의에’ 등 우연성을 강조하는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을 군사적으로 자극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은근히 노출하고 있다. 결국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면서 협상국면을 북한에 유리한 구도로 가져가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넷째, 북한은 군 현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과학원 방문 당시, 김정은은 군수생산 정상화와 국방과학기술의 최첨단화를 위한 단계적 목표와 전략적 목표들이 제시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북한이 군 현대화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마도 2017년 12월에 개최된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제기된 군사 분야의 핵심목표 중 하나일 것으로 짐작된다. 북한은 기존 재래식 무기의 개량이나 새로운 재래식 무기 개발 등을 통해 군사력을 유지하고 유사시에 대비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동결된 상태에서 재래식 전력만으로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이 5월 9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일종의 ‘단거리미사일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오판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